

제주방언 ‘불다’의 문법화 과정

문 순 덕*

차례

1. 머리말
2. ‘불다’의 문법화 과정
 - 2.1 ‘불다’의 보조동사화 단계
 - 2.2 ‘불다’의 단어 형성 단계
3. 맺음말

1. 머리말

우리 국어 보조동사에는 원래부터 보조동사인 것과 본동사에서 보조동사로 문법화된 것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표준어 ‘버리다’에 대응하는 제주방언 ‘불다’¹⁾의 문법화 정도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최현배(1971:401)에서 ‘-어 버리다’를 종결보조사(끝남 도움움직씨)로 분류한 이래 합성동사나 보조용언을 다룬 글에서 ‘버리다’에 본동사와 보조동사 기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문순덕(2000:87)에서 제주방언 ‘불다(버리다)’는 보조동사로, ‘나다’, ‘말다’와 더불어 종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에 따라서 ‘불다’와 ‘비다’ 형태가 있지만 ‘불다’ 형의 분포가 넓기 때문에 이 형태를 취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방언 ‘데끼다’가 지역에 따라서 ‘네끼다’로도 쓰이지만 ‘데끼다’ 형이 보편적으로 쓰이므로 이 형을 기본형으로 선택했다.

능이 있음에는 의견 일치가 보인다. 민현식(1999:125~126)에서는 여러 학자들의(황병순, 김기혁, 김석득, 이관규) 논의를 종합하면서 '-어 버리다'를 보조동사로 다루었으며, 이관규는 '-버리다'가 완료의 보조동사라 했다. 허웅(1975:419)에서는 중세국어 '버리다'가 '완결, 끝장남'의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의 문법기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국어 '버리다'와 같다.

따라서 표준어 '버리다'의 의미와 통사 기능이 유사한 제주방언 '불다'의 문법화 단계와 그 의미로 쓰이는 '테끼다'(던지다, 버리다)의 통사 기능도 살펴보고, '불다'가 단어 형성에 관여할 때 본동사의 기능이 있음도 논의하고자 한다.

2. '불다'의 문법화 과정

2.1 '불다'의 보조동사화 단계

여기서는 표준어 '버리다'의 통사·의미와 같아 보이는 제주방언 '불다'에도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중세국어 '버리다'의 쓰임을 보자.

- (1) 가. 世間 버리고 뉘해 드러(석보상절 6:12)
 나. 恩惠를 니저 버리사(석보상절 6:4)
 다. 破는 흐야브릴씨라.(월석, 서:6-7. 허웅 1975:419)

(1)에서 중세국어 '버리다'는 (1가)처럼 본동사, (1나)처럼 보조동사, (1다)처럼 합성동사 형성의 기능이 있다. 중세국어 '버리다'의 의미와 통사 기능이 현대국어 '버리다'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제주방언 '불다'는 이와는 좀 다르다. 즉 '불다'는 본동사 단독의 기능이 없고, 보조동사의 기능만 드러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가. 이 떡 버린다.

나. *이 떡 분다.(이 떡 버린다.)

다. 이 떡 데킨다.(이 떡 버린다.)

라. 이 떡 데껴 분다.(이 떡 던져 버린다.)

(2가)에서 표준어 '버리다'는 본동사로 쓰였는데 이와 유사한 '불다'가 본동사로 쓰인 (2나)가 문장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주방언 '데끼다'²⁾가 '불다'의 대응으로 쓰일 때 화자의 의도나 선행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던지다'나 '버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2다)는 제주방언 '데끼다'가 '불다'의 영역에서 실현되었다. (2라)처럼 '불다'가 보조동사로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데끼다'는 항상 보조동사 '불다'와 공기한다. (2다, 라)에서 화자가 청자를 협박하는 정도에 따라서 '데끼다'는 '던지다'나 '버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버리다'는 '행위완료/종결'의 의미가 있으므로 '떡을 버린' 행위가 종결되고 눈앞에서 제거됨을 뜻한다. 여기에는 공간과 시선의 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반면 '던지다'는 공간의 이동을 동반하는 행위 종결로 나타난다. 그래서 '데끼다'는 담화 상황에 따라서 '던지다'나 '버리다'의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데껴 불다'는 '버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라)에서 "데껴 분다"에는 "버려 버린다"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표준어 '던지다'와 '버리다'는 의미 영역이 다르지만 제주방언에서는 '데끼다'가 '던지다, 버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데끼다'의 의미가 포괄적인 것은 '불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다'의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라 본다. 이기동(1976:217~220)에서는 보조동사 '-어 버리다'의 의미를 '기대의 어긋남, 부담의 제거'로 정의하였다. 대체로 '버리다'를 완료, 종결의 보조동사로 분류하지만 한 동작이 끝난 후 화자의 감정상태가 해소되거나 현재 사건의 멈춤이 나타나므로 이는 화자의 주관적 관점이 잘 반영된다. 즉 화자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거나 아니거나 두 상황이 존재한다.

2) "그 사탕 이레 데끼라.(그 사탕 여기 던지라.)"에서 '데끼다'는 '던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여기서 '던지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사탕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다’의 문법화 과정을 좀더 살펴보고, ‘데끼다’의 통사 기능도 논의하고자 한다.

(3) 가. 책상 들렁 데끼게.(책상 들어서 버리자.)

나. *책상 들렁 불게.(책상 들어서 버리자.)

(3가)에서 ‘데끼다’는 본동사이며, ‘버리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던지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책상을 들어서 던지다’도 가능한 문장이다. 이는 담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단순히 책상을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던지는 행동만 할 수도 있고, 화자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제거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버리다’의 의미가 강하다. 표준어에서 ‘던지다’와 ‘버리다’는 의미 영역이 다르지만 제주방언에서는 ‘데끼다’가 두 영역을 포함하므로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표준어 ‘버리다’와 제주방언 ‘불다’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나 ‘데끼다’가 ‘불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던지다’보다는 ‘버리다’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3나)는 ‘불다’에 본동사의 통사 기능이 없음을 보여준다. ‘불다’가 원래 보조동사인지, 아니면 본동사의 요소가 남아있는지는 뒤에서(2.2 참조) 논의하고자 한다.

(4) 가. 책상 들러 불까?(책상 들어 버릴까?)

나. 책상 들러데끼까?(책상 들어던질까/내동맹이칠까?)

다. 책상 들러데껴 불까?(책상 들어던져/내동맹이쳐 버릴까?)

(4가, 다)에서 ‘불다’는 보조동사이며, ‘들러데끼다’는 합성동사로 쓰였다. 제주방언 ‘들러데끼다’는 ‘던지다, 내동맹이치다’의 의미로 쓰인다. 예문(2~3)에서 ‘데끼다’에는 ‘버리다’의 의미가 강하지만 ‘들러데끼다’의 의미는 좀 다르다. 즉 (4나, 다)에서 ‘들러데끼다’는 ‘내동맹이치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들다’와 ‘데끼다’가 단순동사일 때 의미는 단지 ‘들어서 던지다/버리다’ 정도인데 합성동사로 결합하면 의미의 변화도

따른다. 이때는 ‘던지다/버리다’의 의미보다는 책상을 들어서 던지는 행동을 나타낸다. 즉 화자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는 합성동사일 때 의미융합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 (5) 가. 이 옷 안 데끼켜.(이 옷 안 버리겠다.)
- 나. 이 옷 데끼지 안햏켜.(이 옷 버리지 않겠다.)
- 다. 이 옷 안 데껴 불켜.(이 옷 안 버려 버리겠다.)
- 라. 이 옷 데껴 불지 안햏켜.(이 옷 버려 버리지 않겠다.)
- 마. *이 옷 안 불켜.(이 옷 안 버리겠다.)
- 바. *이 옷 불지 안햏켜.(이 옷 버리지 않겠다.)

(5가, 나)에서 ‘데끼다’는 단형·장형 부정문이 성립하며, (5다, 라)처럼 ‘데껴 불다’의 단형·장형 부정문도 성립한다. 그런데 ‘불다’는 본동사의 기능이 없으므로 (5마, 바)가 성립하지 않는다. (5다, 라)에서 표준어 ‘버리다’는 한 문장에서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공기하면서 원래 의미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버리다’가 보조동사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제주방언 ‘불다’는 본동사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5다, 라)처럼 선행동사 ‘데끼다’가 ‘불다’의 기능을 하고, ‘불다’는 보조동사로 쓰였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봐와 같이 ‘불다’는 보조동사로 문법화가 되었고, 본동사 자리는 ‘데끼다’에게 넘겨주었다고 본다. 표준어 ‘버려 버리다’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제주방언은 ‘데껴 불다’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본동사 ‘버리다’는 ‘데끼다’와 보조동사 ‘버리다’는 ‘불다’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버리다’가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에서는 보조동사로 문법화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해 제주방언에서는 보조동사화 단계로 굳어졌다고 본다.

민현식(1999 : 123)에 따르면 합성동사와 이은말은 전체 대응이 가능하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분리대응이 가능하지만 합성동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조건에 따라서 ‘불다’가 보조동사로 쓰임을 좀더 확인해 보고자 한다.

- (6) 가. 칠판 밀어 불고, 책상도 경허라.
(칠판 지워 버리고, 책상도 그렇게 해라.)
- 나. 칠판 밀어 불고, 책상도 경해 불라.
(칠판 지워 버리고, 책상도 그렇게 해 버리라.)
- 다. *칠판 밀어 불고, 책상도 밀어 경허라.
(*칠판 지워 버리고, 책상도 밀어 그렇게 해라.)

(6가)는 이은말 전체 대용이 성립한다. (6나)는 ‘밀어 불다’가 이은말이어서 후행절에서 ‘밀다’의 대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6다)처럼 보조동사의 대용형은 불가능하다.

통시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보조용언은 본용에서 문법화되었다. 그런데 ‘불다’는 본동사로서 자립성이 드러나지 않고 보조동사의 단계만 나타나며, ‘불다’의 본동사 자리에는 ‘데끼다’가 실현된다.

2.2 ‘불다’의 단어 형성 단계

앞에서 제주방언 ‘불다’가 보조동사로 문법화되고, ‘데끼다’가 ‘불다’의 본동사로 쓰임을 살펴보았다. ‘불다’가 자립어휘소의 기능이 있는 것은 ‘밀어불다, 숙여불다’처럼 합성어 형성에 관여할 때이다. ‘불다’에 의한 합성동사가 많지만 여기서는 ‘먹다’와 교체되면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밀어불다/밀어먹다’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 (7) 가. 아인 푸더전 이마 밀어먹엇저.(아인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났다.)
- 나. *아인 푸더전 이마 밀어불엇저.
- 다. 난 푸더전 무릎 밀어먹엇저.
- 라. *난 푸더전 무릎 밀어불엇저.
- 마. 이마 밀어먹나 조심허라.(이마에 상처난다 조심해라.)
- 바. *이마 밀어분다 조심허라.

제주방언 ‘밀다’에는 ‘뒹다, 지우다, 깎다’의 기본 의미가 있으며, 합성동

사 ‘밀어먹다/밀어불다’는 ‘흠이 있는 상태, 긁히거나 상처가 나다’는 의미로 쓰인다. (7가)에서 ‘밀다’가 ‘상처 나다, 흠집이 생기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먹다’와 결합해서 합성동사가 된다. ‘밀어서’(긁혀서) ‘먹힌 상태’의 의미가 있다. 이마에 흠집이 난 결과 상처의 흔적이 나타난 것을 뜻하며, ‘행위완료/종결’의 의미가 있어서 동작주의 부주의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동작주의 상태를 청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말할 수도 있다. (7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잘못해서 이마를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불다’가 ‘밀다’와 결합하지 못하며, 동작주가 3인칭이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밀어불다’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다는 의미여야 가능하다. ‘밀어먹다’는 동작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뜻하는데 ‘밀어불다’는 동작주의 의지가 반영될 때 발화된다. 밀어먹지(상처나) 앓기를 바랐는데 동작주의 의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7다)는 1인칭 주어가 화자이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결과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7가, 다)는 주어의 인칭과 상관없이 동작주의 실수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밀어먹다’가 쓰인다. 그런데 (7라)는 1인칭 주어가 화자이지만 ‘밀어불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7나, 라)에서 선행 동사 ‘밀다’와 후행 동사 ‘불다’는 결합하지 못하므로 ‘먹다’와 ‘불다’의 임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7마)에서 동작주와 화자가 다르기 때문에 ‘밀어먹다’가 쓰인다. 즉 “네가 조심하지 않고, 부주의함 때문에 네 이마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여기서도 ‘밀어먹다’는 동작주의 행위 결과가 발생할 때 쓰인다. 반면 동일한 통사 환경에서 ‘먹다’와 ‘불다’를 교체하면 (7바)가 되며 이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밀어불다’는 동작주가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가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도적인 행동을 할 때 가능한 발화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의 이마를 밀어부니까 조심하라.”는 문장은 성립한다. 이에 비해서 ‘밀어먹다’는 어떤 행위 결과가 자신에게 나타날 때 쓰인다.

(7)에서 ‘밀어먹다’는 동작주가 잘못해서 생채기가 난 것을 뜻하며, ‘밀

어블다'는 동작주나 제3자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을 때 가능한 표현이다.³⁾ 이는 '먹다'와 '블다'의 선행 동사 '밀다'의 의미자질에 따른 차이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먹다'는 동작주의 능동적인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며, '블다'는 동작주의 내적 요인 외에 외적 요인에 따라서 동작이 완료될 때 사용된다. 따라서 '밀어먹다'와 '밀어블다'는 각 동사의 기본 의미의 융합 외에 동작주의 적극적인 행동 참여 정도에 따라서 선택되기도 한다.

'밀어블다'의 의미를 좀더 살펴보겠다.

- (8) 가. 난 오늘 자동차 옆문 밀어블었저.(난 오늘 자동차 옆문 굿어버렸다.)
 나. 난 오늘 자동차 옆문 밀어먹었저.
 다. 너가 나 자동차 옆문 밀어블었저?(네가 내 자동차 옆문을 굿어버렸지?)
 라. *너가 나 자동차 옆문 밀어먹었저?

(8가)에서 화자가 1인칭 주어이며 자신의 의지대로 '자동차 옆문을 굿히게 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밀어블다'는 화자의 의지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질 때 쓰인다. (8나)에서 '밀다먹다'는 '굿히다, 흠집이 생기다'는 뜻이며, 화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자동차에 흠집이 났다는 의미가 강하다. 화자는 잘못된 기억이 없는데 자동차에 흠집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발화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8다)는 다른 사람이 고의로 흠집을 냈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즉 자동차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일부러 흠집을 냈다는 뜻이다. 또한 제3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자동차를 건드려서 흠집이 났을 때도 이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밀어블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옆문이 밀어진 상태, 흠집이 난 상태'일 때는 '먹다'보다 '블다'와 '밀다'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여기서 동사 '블다'와 '먹다'의 의미가 비슷하지만 화자의 심리 상태나 행위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쓰임을 알 수 있다.

3) "일부러 나 무릎을 밀어블었저."(일부러 내 무릎에 상처냈다.)처럼 화자의 의도성이 개입할 때는 '밀어블다'가 쓰인다.

(8가, 다)에서 ‘밀어불다’가 동작주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비치는 것은 ‘불다’(버리다)의 기본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8나)처럼 ‘밀어불다’ 자리에 ‘밀어먹다’를 교체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동작주의 인칭과 자의적·타의적인 행동 결과에 따라서 ‘밀어먹다’와 ‘밀어불다’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8라)는 ‘자동차 옆문에 흠집을 낸 것’은 동작주의 의도적인 행동이므로 ‘밀어먹다’가 쓰이지 않는다. 즉 화자가 자신이 자신의 소유물을 해롭게 할 때는 ‘밀어먹다’가 쓰이지만 상대방을 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는 ‘밀어불다’가 쓰인다. 따라서 ‘먹다’와 ‘불다’의 선행 동사가 같더라도 합성 동사의 의미가 달라서 수의적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동사는 표준어에는 없고 제주방언에서만 자유롭게 발화된다.

(8)에서 ‘밀어불다’는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동작주가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 발화된다. ‘밀어먹다’는 동작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즉 ‘밀어먹다’에 비해서 ‘밀어불다’에는 동작주의 고의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제주방언 ‘밀다’에는 ‘굶다’의 의미가 없는데 ‘먹다/불다’와 합성한 ‘밀어먹다’와 ‘밀어불다’가 ‘굶히다/상처나다’의 뜻으로 쓰이면서 의미융합이 강하게 일어난다.

‘불다’의 통사 기능을 좀더 논의하고자 한다.

- (9) 가. 칠판 밀어 불라.(칠판 지워 버려라.)
- 나. *칠판 밀어 먹으라.
- 다. 동산 밀어 분다.(동산 깎아 버린다.)

(9)에서 ‘불다’와 ‘먹다’의 통사 환경이 다름을 알 수 있다. (9가)에서 ‘밀다’는 ‘지우다’는 뜻이며, ‘불다(버리다)’는 보조동사로 쓰여서 ‘밀다’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 즉 ‘지우는 동작의 완료’ 의미가 있다. (9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밀다’(지우다)와 보조동사 ‘먹다’가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물을 지워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밀다’와 ‘먹다’는 의미 연결에

장애가 있어서 이은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9다)에서 ‘밀다’는 ‘깎다’는 뜻이며 이때 ‘불다’가 보조동사로 쓰였다.

‘불다’의 합성동사 기능을 확인해 보겠다.

- (10) 가. 너가 날 속여불고, 가의도 경헛져.
 (네가 나를 속여버리고, 그아이도 그랬다.)
 나. 너가 날 속여불고, 가의도 *경혜불엇져.

(10나)는 ‘속여불다’가 합성동사여서 선행 동사 ‘속이다’와 ‘불다’의 분리 대용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경혜불다’라는 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11) 가. 그 사람이 나를 속여먹었다.
 나. *그 사람이 나를 속여버렸다.
 다. 그 사람이 나를 속여불엇져.(그 사람이 나를 속여버렸다.)

(11가)는 표준어이며, ‘속이다’와 ‘먹다’의 합성어가 가능하지만 (11나)처럼 ‘속이다’와 ‘버리다’의 합성동사 형성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11다)처럼 제주방언에서는 ‘속여불다’가 쓰인다. 제주방언에서 ‘속이다(썩이다)+불다’ 합성동사는 성립하며, ‘속이다+먹다’ 합성동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속이다’가 ‘먹다’나 ‘불다’를 후행 동사로 선택하는 것은 제주방언과 표준어의 차이점이다. 제주방언은 선행 동사 ‘속다’와 통합하는 후행 동사로 ‘불다’를 선택하며, 표준어는 ‘먹다’를 선택한다. 제주방언에서 합성동사 형성 시 ‘먹다’와 ‘불다’가 교체되기는 해도 이는 선행 동사에 따라서 선택적임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 토박이화자들은 지금도 ‘속여불다’를 사용하며, 표준어 ‘속여먹다’는 사용하지 않는 반면 ‘속이다’를 쓰는 편이다.

합성동사 ‘밀어불다’와 ‘속여불다’에서 ‘불다’가 단어 형성소의 기능이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불다’가 합성어 형성에 관여할 때만 본동사의 기능이 드러나고, 그 외는 보조동사로 문법화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3. 맺음말

여기서는 표준어 ‘버리다’의 의미와 통사 기능이 유사한 제주방언 ‘불다’의 문법화 과정을 논의해 보았다. 표준어 ‘버리다’는 본동사의 주 기능이 있으며 보조동사화 단계에 있는데 제주방언 ‘불다’가 본동사 단독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미 보조동사화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불다’ 본동사 자리에는 ‘데끼다’가 쓰인다.

제주방언 ‘데끼다’가 문맥에 따라서 ‘던지다, 버리다’의 의미로 쓰이지만 표준어 ‘던지다’와 ‘버리다’는 의미 영역이 다르다. ‘데끼다’의 의미가 표준어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쓰이는 것은 ‘불다’에 본동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다’의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라 본다. 즉 ‘불다’의 본동사 기능이 필요할 때 ‘데끼다’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고 본다. 제주방언 ‘데끼다’가 처음부터 ‘불다’의 통사 기능을 유지했다기보다는 ‘불다’의 통사 기능이 축소되면서 그 기능이 확장되었다고 본다. 즉 ‘불다’가 본래부터 보조동사의 문법 기능만 있었다면 ‘밀어불다, 속여불다’처럼 단어 형성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 핵심어: 문법화, 버리다, 불다, 데끼다, 밀어불다, 속여불다

<참고문헌>

- 김기혁(1995), 『국어문법연구』, 박이정.
- 김선희(1984), 「합성동사의 의미 분석 : ‘먹다, 치우다, 들다, 제거하다, 붙이다, 나(아)가다’를 중심으로」, 『한글』 183, 99-119.
- 김일병(2000), 『국어 합성어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지은(1990), 「도움움직씨 ‘(-아) 버리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 『한글』 207, 125-150.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박사논문.
- 남광우 편(1971), 『補訂 古語辭典』, 일조각.
- 문순덕(2000), 「제주방언 보조용언의 통사·의미」, 『언어학연구』 5, 제주

언어학회. 83-97.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손 세모들(1993), 『국어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한양대박사논문.

유창순(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이기동(1976), 「조동사의 의미 분석」, 『문법연구』 3, 215-235.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탐출판사.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한영목(2000), 「보조용언 -번지다, 쌓다'와 충남 방언」, 『한글』 249,
209-239.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Abstract>

On the Grammatical Process of 'bulda' in Jeju Dialect

Moon Soon-deok

This paper discusses the grammatical process of 'bulda' in Jeju Dialect, which is similar to 'beorida' in Standard Korean in its semantic and syntactic functions. Both Middle Korean 'borida' and Modern Korean 'beorida' are in the grammatical process as an auxiliary verb. Jeju Dialect 'bulda' has no function of main verb and instead was in the same process as an auxiliary verb, whereas 'dekkida' functions as a main verb when used in the sense of 'bulda.'

It is assumed, however, that Jeju Dialect 'dekkida' remained originally the syntactic function of 'bulda.' It is rather assumed that the function of 'dekkida' was expanded as a syntactic function of 'bulda' dwindled. If 'bulda' had only had a grammatical function of auxiliary verb by nature,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form such compound verbs as 'mileo-bulda' or 'sokyeo-bulda.'

Given this, it follows that 'bulda' of Jeju Dialect remains its syntactic function only in forming a compound verb and its grammatical process as a function of auxiliary verb came to an end.

- Key words: grammatical process, beorida, bulda, dekkida, mireo-bulda, sokyeo-bulda